곡성군, 심청한옥마을 다양한 프로그램 기대감 고조

심청한옥마을 전경

문체부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 선정…총 7천만원 투입

저잣거리 · 민화 공예 상시 운영…체험프로그램 주민 직접 참여

곡성군 심청한옥마을이 문체부가 주관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전통한옥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고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및 공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에 선정된 곡성군은 총 7천만 원(국비 2천 8백만 원 포함)을 들여 심청한옥마을에서 다양한 전통체험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저잣거리 체험과 민화 공예 등은 상시 운영된다. 외국인과 고령자들은 사전신청에 따라 심청혼례체험도 즐길 수 있다. 현재 4월 초 전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 중이다. 또한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에는 황후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심청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로컬의 특색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이 저잣거리 상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곡성군은 주민 참여를 통해 여행객은 지역의 본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마을에는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민 소득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심청한옥마을 전체를 주막과 서당, 저잣거리, 공연장 등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통 놀이와 공연, 혼례 등 프로그램을 더해 함께하는 작은 마을 축제를 만들고 싶다. 방문하신 분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 시대로 돌아간듯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화순군 "악취저감시설 · 축산기자재 신청하세요"

오는 19일까지 축산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화순군은 악취저감시설과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축산농장의 악취 저감과 분뇨 처리를 위해 총 사업비 11억4000만 원의 7개 사업을 접수한다.

세부사업은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제 ▲퇴비 부숙도 촉진시설 ▲악취개선시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퇴액비살포비 ▲양돈분뇨처리비 지원이다. 축산농가의 경영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축산기자재를 지원하는 총 사업비 2억6000만 원의 5개 사업도 신청받는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양돈생산성향상(면역증강제) ▲환풍기 ▲한우자동목걸림장치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으로는 화순군에 축산업 등록이 된 축산경영체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과 관리를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형 축산, HACCP 인증, 녹색축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우선 지원해 환경친화적 가축 사육 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에서 세부사업으로 검색하거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379-3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운곡동 정량마을 하수관거 정비 다음달 착공

2023년까지 시비 38억원 투입…오수관로 5.6km정비

나주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운곡동 정량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오는 3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시비 38억원을 투입, 운곡동 정량·진부·평촌마을 일원에 오수관로 5.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오수 분류식화, 낙후된 관로 정비를 통한 하천 수질 개선과 악취저감 효과로 주민 78가구의 거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위치한 마을 특성을 감안해 환경부 국고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이에 시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기로 결정,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공사 착공에 앞서 최근 공공하수처리장 2층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개요와 공사 일정 등을 안내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소음, 굴착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수질 악화와 악취로 인해 오랜 고충을 겪어온 주민들이 이번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101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벼 보급종 구입비 지원 시작"

포대 당 1만 원 지원… 농가 경영비 절감·품질 쌀 생산 기여

장성군이 정부 벼 보급종 구입비 지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 벼 보급종은 생산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우량종자다. 순도가 높고 우수한 발아율을 지녔으며,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채종 관리와 정선, 소독 등의 비용이 공급가격에 반영되어, 구입 농가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벼 보급종 신청 농가에 2020년산 벼 보급종 한 포대(20kg) 당 1만 원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상 품종은 조명1호, 새청무, 신동진, 새일미, 동진찰, 백옥찰, 영호진미, 일미, 미품 총 9종이다.

벼 보급종을 신청한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 방문해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고 종자를 수령하면 된다.

단, 정부 벼 보급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종자 대를 지원받은 농가 및 단체는 사업 대상이 아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봄철 산불 방지대책본부 운영

담양군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담양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을 중심으로 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등산로,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해 예방활동은 물론 논·밭두렁 무단 소각행위, 산불예방 홍보 등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한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운영으로 산불 없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작

사회취약계층 주택난 해소에 기여…– 100세대 중 55세대 입주

구례군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됐다.

구례군은 2019년 6월 첫 삽을 뜬 구례읍 봉서리 일원(한국전력 구례지사 뒤) 국민 임대주택의 공사를 최근 완료하고 지난 1월 18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민선 7기 구례군 군수공약사항으로 총사업비 116억을 투입하여 6,430㎡의 대지에 2개동, 지상 9층으로 건립됐다. 총 100세대 규모의 4가지 유형으로 전용면적은 22㎡형(56세대), 26㎡형(12세대), 33㎡형(28세대), 48㎡형(4세대)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5월 입주자 100세대 모집에 337명이 신청하여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1월 26일 기준으로 100세대 중 55세대가 입주해 있다. 입주지정기간은 2월 18일까지다.

구례=박진호 기자